

“感 좋아… 국민들 성원 성적으로 보답할 것”



최경주 마스터스 1R 존슨·맥도웰과 한 조

“난 4월이면 몸 풀리는 스타일… 즐기겠다”

“새벽부터 마스터스를 시청하실 많은 국민의 성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 한국 골프의 간판 최경주(43)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꿈의 무대’ 마스터스를 앞두고 입술을 짙은 깨물었다.

최경주는 1라운드에 잭 존슨(미국), 그레이트 맥도웰(북아일랜드)과 한 조에서 플레이한다. “마스터스는 다른 대회와 달리 누구랑 치느냐가 경기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는 “부담 느끼지 않고 게임을 즐기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주와 일본일답.

-이전과 달리 마스터스 직전 대회에 출전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있나.

▲자기가 사는 곳(앨러스)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출전하지 않는다면 텍사스 팬들이 항상 불만이었다. 지난달 말 바뀐 새 캐디와 손발을 맞춰 보자는 생각도 있었다.

-연습 라운드를 강하게 했는데 피곤하지 않은가.

▲당연히 피곤하지만 기분은 굉장

히 좋다. 사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간 피곤한 것이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태다.

-마음속으로 정한 목표가 있다면.

▲지난 2년 동안 너무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전에 너무 진을 뺐고 그것이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집듯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해보겠다는 생각은 버렸다.

-존슨, 맥도웰과 한 조가 됐다.

▲셋이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색깔이 다르다. 맥도웰은 속도가 빠르고 존슨은 느린 플레이어이다. 존 편성은 무난한 것 같다. 그러나 마스터스는 누구랑 치느냐가 경기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골프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선수가 특유의 분위기에 젖고 그것이 곧 셋업이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터스 출전이 11번째, 그것도 연속이다.

▲클럽하우스 주방에 있는 사람도 안 바뀌고 어딜 가나 내가 아는 사람 그대로더라. 결국 자기 게임을 얼마나 신중하게 잘 끌고 가느냐가 중요



최경주

은 성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나는 건재하다’라는 자신감을 준다. 깊은 친구들과 불어도 아직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메이저 타이틀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는.

▲나는 플레이어스컵과 인상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생각하지만 공식 메이저는 마스터스다. 우승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거기에 부대기 게 사실이다. 그저 자만하지 않고 평소 모습 그대로를 실전에 우려내자는 생각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마스터스는 쇼트게임을 잘해야 한다. 티샷도 물론 중요하나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아이언 두 번째 샷을 누가 더 페팅을 잘할 수 있는 곳에 갖다놓느냐, 그린을 놓치고 다음 샷을 어떻게 훌륭하게 치워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빠른 그린에 대응은.

▲마스터스 그린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결국 내 게임을 내가 얼마나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이번엔 최대한 즐길 것이다.

/연합뉴스



“이맛이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가 10일(한국시간) 터키 갈라타사라이와 가진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빼기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 2골… 레알, 힘겹게 4강

UEFA 챔스, 갈라타사라이에 5-3… ‘마지막 4분의 기적’ 도르트문트 4강 합류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명문 텔레 미드리드가 2골을 뽑아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힘입어 갈라타사라이(터키)에 역전패하고도 2012-2013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10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의 트리크 텔레콤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8강 원정 2차전에서 2-3으로 졌다. 그러나 앞서 홈에서 치른 1차전에서 3-0으로 이긴 덕분에 1, 2차전 합계 5-3으로 갈라타사라이를 끌려세우고 4강 진출권을 땄다.

호날두는 전반 7분과 후반 추가시간에 팀의 두 골을 모두 책임지며 해결사 노릇을 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10호, 11호골을 기록한 터뜨린 호날두는 8골을 올린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부락 일마즈(갈라타사라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득점 1위를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7분 만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선제골에 힘입어 어여유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듯했지만 후반전에 연달아 골을 내주며 흔들렸다. 호날두는 사미 케디라가

골 지역 오른쪽 각도 없는 상황에서 올린 낮은 크로스를 골문앞에서 왼발로 방향만 살짝 바꿔 차넣어 골문을 열어젖혔다.

후반전 들어 갈라타사라이에는 세 골을 몰아치면서 텔레 마드리드를 위협했다.

갈라타사라이는 후반 13분 스네이더의 크로스를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에마뉘엘 에부에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에 꽂아 헤딩의 발관을 마련

했다. 후반 26분에는 스네이더에게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추가 골을 더 땄던 데 이어 1분후에는 드로그바가 절묘한 헤딩으로 골문을 다시 열었다. 하지만 원정에서 3골을 내주고 선제골까지 빼앗긴 갈라타사라이가 승부를 뒤집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오히려 후반 추가시간 호날두가 빼기골을 터뜨리며 텔레 마드리드의 4강 진출을 확정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연합뉴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받아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60)이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정행 회장은 지난 8일 개막한 제23회 용인대총장기 전국 남녀 고교 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감진군을 찾았던 전 사무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사무처장은 2013년도 국가대표 사격 후보선수들의 동계 합숙훈련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경기력 향

상을 이끌었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정행 회장 취임 이후 전국의 체육계 인사로서는 첫 감사패 수상이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지역의 스포츠 미래는 우수선수 육성과 함께 활발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면서 “체육인 위상제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최경주 “골프 드림센터 짓겠다”

세계 최초…5년 프로젝트

“마음 놓고 연습할 공간”

한국골프의 맘말 최경주가 “드림센터”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최경주는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꿈의 무대’ 마스터스 개막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최경주 재단에서 ‘꿈의 등지 센터’(Build a dream nest)라는 이름의 골프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경주는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골프 연습을 할 데가 없고, 이는 대표선수들도 마찬가지”라며 “쇼트게임, 병거, 파3 훌을 갖춘 3층

짜리 연습장을 지어 선수들이 돈 걱정 없이 실력을 쌓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라고 말했다. 그는 “드림센터를 지으려면 부지확보를 시작으로 건설설계, 정부 예산편성, 국회의 사회생활 체육기금 활용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계획안은 세워져 있고 분명히 5년안에 세계 최초의 드림센터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경주는 올해 미국 골프기자협회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 선수에게 주는 ‘찰리 바틀렛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단순히 하나의 개인적인 최경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아시아 골프쪽에 관한 히스토리(역사를)를 만드는 발판에 나를 세운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상은 1971년 제정됐으며 아시아 선수의 수상은 최경주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우즈 1·2 라운드서

루크 도널드와 대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1일 개막하는 마스터스 골프대회 1, 2라운드에서 전 세계랭킹 1위 루크 도널드(잉글랜드)와 대결을 벌인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우즈와 도널드, 스콧 피어이(미국)를 같은 조에 편성하는 등 1,2라운드 티오프 시간을 발표했다.

다섯 번째 마스터스 우승을 노리는 우즈는 한국시간 11일 밤 11시 45분 경기를 시작한다.

우즈와 골프 1인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로리 매클로이(북아일랜드)는 키건 브래들리(미국), 프레드리 야콥슨(스웨덴)과 12일 오전 2시 41분 샷을 날린다.

/연합뉴스

▲광주전시문화체육관 4월 14일(일) 전남 광진 강변, 4월 15일(월) 전남 광진 강변, 4월 16일(화) 전남 광진 강변, 4월 17일(수) 전남 광진 강변, 4월 18일(목) 전남 광진 강변, 4월 19일(금) 전남 광진 강변, 4월 20일(토) 전남 광진 강변, 4월 21일(일) 전남 광진 강변, 4월 22일(월) 전남 광진 강변, 4월 23일(화) 전남 광진 강변, 4월 24일(수) 전남 광진 강변, 4월 25일(목) 전남 광진 강변, 4월 26일(금) 전남 광진 강변, 4월 27일(토) 전남 광진 강변, 4월 28일(일) 전남 광진 강변, 4월 29일(월) 전남 광진 강변, 4월 30일(화) 전남 광진 강변, 4월 31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1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2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3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4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5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6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7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8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9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10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11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12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13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14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15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16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17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18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19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20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21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22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23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24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25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26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27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28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29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30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31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1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2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3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4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5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6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7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8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9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10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11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12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13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14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15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16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17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18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19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20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21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22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23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24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25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26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27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28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29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30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31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1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2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3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4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5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6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7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8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9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10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11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12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13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14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15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16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17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18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19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20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21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22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23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24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25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26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27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28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29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30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31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1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2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3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4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5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6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7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8일(토) 전남 광진 강변, 5월 9일(일) 전남 광진 강변, 5월 10일(월) 전남 광진 강변, 5월 11일(화) 전남 광진 강변, 5월 12일(수) 전남 광진 강변, 5월 13일(목) 전남 광진 강변, 5월 14일(금) 전남 광진 강변, 5월 15일